

한미관세협상...與 “최선 결과 도출” 野 “백악관 발표와 달라”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성과 성과라면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상이한 발표 내용 등을 깨물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어제 전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재명정부가 전력투구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원칙이나 협상 전략 같은 것이 있었느냐”며 “국민에게 이런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익 우선,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원칙을 견지했고 미국 측을 많이 설득했다”며 “대통령께서 많은 중심을 잡아 주셔서 협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가 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승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

최은석 “미국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무슨 말이나?”

결대 무관세로 무역했는데 15% 보편관세를 물게 됐다.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우리 돈을 부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우리 경제 주름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대비하는 것도 또다른 숙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 기빠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했는데 현재로서는 MOU 체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평가하기 힘들 것 같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미국 측에서 두 가지 정도 이견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늦게 백악관이 홈페이지

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상세하게 (명시) 돼 있던데 김 정책실장 브리핑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다. 대미 현금투자와 관계가 있는건지 별도 투자인지 내용을 구분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미국 상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이게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까지 포함된 시장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3500억달러 투자라는 금액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같은 틀 내에서는 고생을 했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체 지속력이 없는

MOU 외에 별도의 협정은 따로 없느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네”라면서 “미국과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엠브렐라 법인을 설명하면서 아주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일부가 손해를 봐도 엠브렐라 법인이기 때문에 타 이익에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부가 이익이 있어서 다른데서 손해가 크면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MOU에 뜻을 박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엠브렐라 법인에 대해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내가 너무 바빠 김정은 못 만나... 돌아오겠다” “김정은 만났다면 (시진핑) 회담에 대한 결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일정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며, 회담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국민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끝내고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 관련 연락한 바 있는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며 “보시다시피 내가 너무 바빠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시 주석과)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무례한 행동이 됐을 것”이라며 “김정은과 관련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만나면 어떤 논의를 할지 묻자 “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그가 마옴만 먹으면 큰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 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

다. 김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길 원한다면 순방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 줬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29일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선 만나지 않을 것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엔 시간이 맞지 않았다”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어 “상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겠다”며 정전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뉴시스

정청래,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국정조사로 원인 밝혀야”

정청래 “진실 규명 작업 더더... 여야 합의 국조 진행”

유가족협의회, 국정조사에 유가족 직접 참여 요청

민주 “유족, 비교섭단체 국정조위 구성 참여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30일 만나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요구하는 바도 있어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

사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 합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 되기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도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진행 상황과 관계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국정

조사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자리다. 유가족이 그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 반반씩 동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유가족 측은 비교섭단체 참여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이건 여야 간사한 협의할 일이다. 유가족 뜻을 잘 전달해 관철되도록 하겠다”며 “국정감사 마무리는 만큼 (국조특위) 구성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유가족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회의 등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도 전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당 지도부와 유가족간 소통을 위해 전담 참모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월출산 2025 10.30.(목) ~ 11.16.(일) 월출산 기찬랜드 일원. Includes an illustration of a festival scene with a hot air balloon, a pagoda, and people.